

부산파라다이스 비치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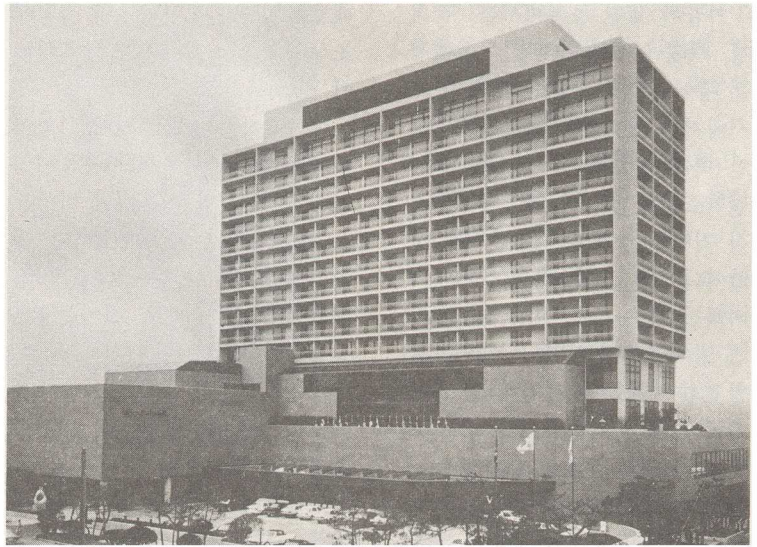
• 글 / 이 상 건 <홍보부 대리>

낙동 강 칠백리 굽이쳐 흘러 마침내 바다와 만나는 곳, 이곳이 바로 부산이다. 대한팔경의 하나로 꼽히는 해운대의 절경과 함께 송도, 태종대가 부산의 명소로서 이름을 떨칠 뿐 아니라 새벽의 자갈치 시장은 싱싱한 생선으로 활기가 가득 넘치고 은은히 들려오는 뱃고동 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괜히 설레이게 한다.

86아시아게임과 88올림픽을 위해 수영만에 만들어진 요트경기장은 그 일대의 대규모 관광위락단지의 조성과 함께 국제규모의 레저시설을 자랑하는 부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등장했다.

신라시대의 유명한 한학자인 최치원이 유람와 자신의 자를 빌어 이름붙인 이 곳 해운대는 10km의 푸른 바다를 낀 해안의 드라이브 웨이를 따라 고급호텔이 늘어서 있어 야경을 보는 해운대의 운치 또한 일품이랄 수 있다. 더구나 해운대는 라돈온천장으로도 알려져 국내 최대의 휴양지로서 손색이 없다.

이번 호에는 88올림픽에 대비하여 완벽한 방화시설과 철저한 유지관리로 소문난 파라다이스 비치호텔을 찾았다.



• 개요

항도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중동 1048-5. 해변가 중앙 정면에 위치한 파라다이스 비치호텔은 지난 87년 7월말 약 2년7개월의 공사를 마치고 새로이 개관되었다.

맑은 햇살을 맞으며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는 이 호텔은 3천2백 98평의 대지에 연면적 1만1천4백28평의 지하2층, 지상15층 규모로서, 2백50실의 객실과 10개의 식당과 바, 라스베가스 스타일의 카지노, 헬스센터, 연회장, 비지니스센터 등을 가지고 있는

특급호텔로 7백90여명의 종업원이 고객을 맞고 있다.

• 시설개요

이 호텔에는 대형빌딩의 각종 설비를 종합제어하기 위해 개발된 JX-140 system을 설치하고 있다.

이 설비를 이용하여 중앙감시반에 위치한 한대의 컴퓨터에 각 관리대상의 자료를 수집, 주변기기에 연결함으로써 공조, 전력, 위생, 방재시설을 환경조건 또는 설계조건에 따라 적절히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소방시설로는 현재 건물내에

1백2대의 소화기와 40개소의 옥내소화전, 전층에 자동식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가 되어 있고 중요시설 11개소에는 하론 1301 소화설비가 되어 있으며 경유탱크실에는 CO₂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조기 화재감지를 위해 83개 회로의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방송설비를 설치했으며 피난을 위해서는 2개소의 특별피난계단과 각 영업장 전용의 피난계단이 19개소에 설치되어 있다.

파라다이스 비치호텔에서 특이한 점은 모든 용수의 경도를 0까지 떨어뜨려 사용함으로써 모든 소화설비의 배관 수명을 최대한으로 연장시킬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 건축물의 방화시설

철근콘크리트 라멘조의 주요 구조체에 석고보드, 석재, 질섬보드, 아스칼텍스 등의 불연성 내장재를 사용하였고 각 객실은 반자가 없이 철근콘크리트 바닥 도장으로 마감하여 각 객실을 개별 방화구획하였다. 일반 영업의 경우는 천정속 벽체까지 미장한 후 반자를 설치하는 등 유사시 연소확대방지에 최대 주안점을 두었다고 한다.

또한 각 객실마다 베란다를 설치하여 유사시 각 실에 비치된 방연마스크를 착용하고 위급상황으로 부터 대피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

• 소방안전관리

『협회의 안전점검시 경보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에 소화설비 할인을 적용받을 정도로 기본적

인 소방시설이 완벽에 가깝게 되어 있어 현 상태에서는 시설보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황인재 시설부장은 파라다이스 비치호텔의 완벽한 방화시설을 설명하면서 『보다 정확한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45개소의 순찰함을 따라 매시간 2인1조의 순찰반이 전관을 돌면서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 및 작동상태, 화기 취급상태, 피난출구의 장애물 방치여부 등을 체크·보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소개했다.

종업원에 대한 교육에서도 각 영업장의 특성에 따라 각 업장내에 시설된 설비의 이용방법과 유사시 응급조치 요령, 이용객의 피난·대피·유도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종업원의 사소한 부주의와 고객의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각 업장별로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체소방교육의 이수를 의무화해 놓고 있다.

• 한발 앞선 경영진의 인식

건축 당시 경영진의 뜻에 따라 화협에 기술자문을 요청하였으며 화협 부산지부의 성의있는 기술지도에 힘입어 방화구획과 경보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화시설에 완벽을 기할 수 있었다고 한다. 특히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당초 설계상 헤드수가 4천8백여개 였으나 기술자문과정에서 미비점이 노출되어 7천6백여개 정도로 헤드수를 증가시켜 완벽을 기할 수 있었듯이 최고경영진의 방화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실무진의 의식보다 한발

앞선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당연한 결과이겠으나 이렇듯 이 경영진의 확고한 방침에 따라 건축된 파라다이스 비치호텔은 본 협회의 안전점검시 병행된 소화설비할인검사에서 공지할인 20%, 경보설비 5%, 스프링클러설비 40%, 하론소화설비 20%라는 대단히 큰 폭의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었다.

협회의 점검업무에 대하여 김용배 기계과장은 『지난번 신축시 화협에 기술자문을 요청한 것은 정말 잘한 일로 기본적인 법규의 틀을 벗어나 소화설비규정에까지 조언하여 주었기때문에 2차·3차 원보강 등을 위한 2천1백만원의 추가경비에도 불구하고 신채배 상특약부 화재보험에서만 1천4백여 만원의 보험료가 경감되었고 동산보험에까지 적용된 것을 감안한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제는 방재시설이라는 것이 경제성도 없이 투자만 요구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완벽한 방화시설을 갖추므로써 건물의 안전 확보라는 무형의 이익과 보험료 할인이라는 유형의 이익, 즉 건축물의 관리면에서 경비의 절감 효과가 있음을 인식해야 할 때인 것 같다.

얼마 남지않은 88올림픽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에 대한 경영자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완벽한 방화관리체제를 갖추고 손님맞이 준비에 여념이 없는 파라다이스 비치호텔이 명실공히 부산지역의 방재 선두주자로서 이 지역의 방화의식 제고에 일조할 것을 기대해 본다. (●)